

광주 상무지구에 전국 최초 중형 포함 '평생주택'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입주 1371억 들여 460세대 건립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 추진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형 평형이 포함된 '광주형 평생 주택' 시범 사업을 본격화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심 노후자위인 상무소각장 인근에 들어선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 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최근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광주형 평생 주택은 도심 내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을 두루 갖춘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시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각 분

야 전문가들로 사업추진 협업팀을 구성하고, 공급 대상(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논의한 뒤 국토교통부 건설형 공공주택공급계획에 포함해 국비 지원을 확정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형이 아닌 중형 평형(전용 85㎡ 이하)도 공급해 주거의 질도 높이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광주 핵심 지역인 상무지구 상무 소각장 인근에 460세대 규모로 사업비 1371억원을 투입해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전용 면적별로 84㎡ 224가구, 59㎡ 176가구, 36㎡ 60가구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협업팀을 가동해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21일 설계 공모를 공고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3일 설계 작품을 접수하고 같은 달 9일 작품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선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본·실시 설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역에서는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

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낙후된 아파트라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2357명 모집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정부 2차 추경으로 국비 69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76억여 원 규모로 227개 사업에 235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고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고용 충격이 큰 취약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시민을 우선 선발한다.

주요 사업은 ▲백신접종 지원(발열 점검 및 현장 접수, 거동 불편 접종자 도움) ▲생활방역(지역대학,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역현안 사업(공공휴식 공간 및 문화예술 환경정비 지원) 등이다.

근로 기준은 사업별로 다르며, 주 20시간, 시급 8720원에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는 4대 보험 가입과 함께 월 100만원(시급 8720원, 4시간 근무 기준)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원한 생수 드시고 폭염 이기세요

광주 동구 새마을회 회원들이 10일 남광주시장 광장 주차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얼음생수와 부채,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자치경찰·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범죄 예방 나선다

광주 자치경찰이 도시공사와 손잡고 임대주택 범죄 예방에 나선다.

광주 자치경찰 위원회, 광주 도시공사, 광주경찰청은 10일 광주시청 비즈니스층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들은 범죄환경 설계(CPTED) 컨설팅, 노인 등 1인 가구 사물인터넷(IOT) 돌봄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1인 가구, 한부모 가정에게 임대한 다가구 주택에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하고 배관 등 침입 우려가 있는 시설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등 시설물을 확충한다.

신속 후 임대하는 주택에는 광주경찰청 범죄예방 진단팀(CPO)이 참여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관들은 올해 시범 대상을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총 10억8000만원을 들여 범죄 예방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광산구 우산동 빗어울체아파트의 장애인, 노인 등 취약 1인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GGM생산 차량 홍보·판매 지원 현대차에 전시관 설치 운영 제안 등 소통 강화

광주시가 다음 달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차량 홍보·판매 지원에 나선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GGM은 다음 달 중순부터 현대차의 새로운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인 'AX1'(프로젝트명)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2019년 1월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같은 해 12월 공장 착공 후 1년 9개월 만의 결실이다.

광주시는 GGM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위탁 생산공장으로 자리 잡도록 GGM은 물론 AX1 차량 영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현대차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에서 광주 주요 장소에 전시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시 등 공공기관은 AX1을 공용차량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GGM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위탁생산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차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관련 실국은 GGM 그리고 AX1 차량의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현대차와 긴밀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핀셋 방역 발생위험지역 이동금지 엄격 적용

2019년부터 설정된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및 발생 위험지역 34개 시·군에 대한 돼지, 사료, 분뇨의 이동금지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18건 중 15건이 어미돼지 축사에서 최초 확인됨에 따라 전실 설치, 출입 전 손 씻기, 장갑 갈아신기, 퇴액비 처리 손수레 소독 등 농장 방역 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나타나 양돈농장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아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해 한 번 발생하면 중식이 어렵다.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강원도 고성외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에 바이러스가 유입하지 않도록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성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지난 5월 강원도 영월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18번째다.

전남도는 야생멧돼지와 오염된 남은 음식물에 의한 직접 전파도 매우 위험하지만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차량이 이를 묻혀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야생멧돼지가 백두대간을 따라 충북과 경북 북부지역으로 남하할 것을 대비,

전남도 '다자녀행복카드' 상반기 1053명 신규 발급

전남도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다자녀행복카드'가 호응을 얻어 올해 사용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행복카드 연간 신규 발급 인원을 4000명으로 늘리고, 지역 가맹점도 4000개까지 확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초 홍보물 1만3000여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자, 유튜브 등으로 집중 홍보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1053명이 다자녀행복카드를 신규 발급했고, 60여 업체가 가맹점으로 새롭게 등록했다.

현재 다자녀카드 이용자는 5333명이다. 가맹점은 음식점 190개, 안경점 92개, 미용실 37개 등 총 475개 업체로 늘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완두콩칩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